

알코올 관련성 유산산증

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이상주, 정승현, 장동석, 나기량, 이강욱, 신영태

알코올은 유산산증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한 알코올 관련성 유산산증은 흔하지 않으며 아직 국내에 보고된 바는 없다. 저자들은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 후 발생한 극심한 알코올 관련성 유산산증 환자에서 적극적인 치료로 회복되었던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 1: 평소 자주 폭음을 하던 47세 남자가 3일전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술만 마시던 중 복통, 구역, 구토가 있었고 내원 일 호흡곤란과 흉부압박감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하였다. 이학적 검사상 혈압 90/60mmHg, 호흡수 24회/분이었고, 체온은 36°C였다. 혈액검사상 백혈구 19,600/mm³, 혈색소 16.1g/dl, 혈소판 253,000/mm³이었다. 혈액화학검사에서 BUN 51mg/dl, creatinine 3.6mg/dl, Na/K/Cl은 130/3.6/82.4mEq/L, glucose 250mg/dl, lactic acid 12mmol/L, CPK 114U/L, 동맥혈 가스검사상 pH 6.79, PaCO₂ 9.6mmHg, PaO₂ 167mmHg, HCO₃ 1.4mmol/L이었다. 삼투압차는 62mmol/L, 음이온차는 46.2mmol/L, 요검사상 케톤은 음성이었다. 내원 후 6시간 동안 2L의 수액과 500mEq의 Sodium bicarbonate가 투여 되었으나 pH 6.99, PaCO₂ 28.8mmHg, PaO₂ 71.9mmHg, HCO₃ 6.8mmol/L로 호전되지 않아 응급 혈액투석을 시행하였고 pH 7.48, PaCO₂ 31mmHg, PaO₂ 164mmHg, HCO₃ 22mmol/L로 호전되었다.

증례 2: 평소 술을 많이 먹던 44세 남자가 여관에서 수일간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. 이학적 검사상 혈압 80/50mmHg, 호흡수 40회/분이었고, 체온은 36.7°C였다. 혈액 검사상 백혈구 6,400/mm³, 혈색소 11.6g/dl, 혈소판 94,000/mm³이었다. 혈액화학검사에서 BUN 19mg/dl, creatinine 2.96mg/dl, Na/K/Cl은 136.6/4.5/86.2mEq/L, glucose 98mg/dl, lactic acid 12mmol/L, CPK 89U/L, 동맥혈 가스검사상 pH 6.66, PaCO₂ 9.5mmHg, PaO₂ 151mmHg, HCO₃ 1.1mmol/L이었다. 삼투압차는 39mmol/L, 음이온차는 49.3mmol/L, 요검사상 케톤은 (+)이었다. 내원후 7시간 동안 2800ml 의 수액과 560mEq의 Sodium bicarbonate가 투여 되었으나 pH 7.10, PaCO₂ 26.2mmHg, PaO₂ 80.6mmHg, HCO₃ 8.0mmol/L, 폐부종으로 응급 혈액투석을 시행하였고 pH 7.38, PaCO₂ 31mmHg, PaO₂ 111mmHg, HCO₃ 18mmol/L로 호전되었다.